

디지털본드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김 지 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싱가포르사무소 대리)

- ④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전통 금융상품인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26년 5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디지털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 ④ 디지털본드의 개념 및 특징, 시장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함

I. 디지털본드의 개요

▶ (개념)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는 채권

- ④ 채권은 정부·공공기관·기업이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 현재는 중앙예탁기관 (한국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 장부에 누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록됨
- ④ 디지털본드는 이 기록을 다수 참여자가 동일한 장부 사본을 나누어 보관 및 검증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 DLT)에 토큰 형태로 기록한 채권을 말함
 - 즉,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는 기존 채권과 동일하며, 권리를 기록하고 주고받는 장부의 방식이 달라진 것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의미
블록체인(DLT)	• 거래 기록을 중앙기관 없이 여러 참여자가 분산 보관·검증하는 디지털 장부 기술 (분산원장기술)
토큰(Token)	• 블록체인 장부 위에서 자산의 권리를 표시하는 디지털 증표
토큰증권(STO)	• 주식·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Security Token). 암호화폐와 다르게 자본시장 법규의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해당
스마트 계약	• 이자지급일이 되면 자동으로 이자를 송금하는 것처럼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도록 블록체인에 심어 놓은 컴퓨터 프로그램
동시 결제(DvP)	•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맞교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함. 블록체인에서는 채권 토큰과 현금 토큰 즉시 교환(Atomic Settlement)하는 것이 가능

▶▶ (주요 차이점) 중개기관의 최소화로 인한 거래 효율화 및 개인 소액투자 가능성

- ⑤ 기존 채권은 발행-예탁-청산 및 결제-원리금 지급의 전 과정에 다수의 중개기관(주관사, 예탁기관, 청산소, 결제은행, 지급대행기관 등)이 개입하여 통상 5영업일의 결제기간(T+5)이 소요
- ⑥ 디지털본드는 이 과정의 상당부분을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함으로써 ① 중개비용 절감, ② 결제기간 단축, ③ 24시간 거래가능성, ④ 소액단위 분할거래 등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 차이점 정리

구 분	전통 채권	디지털본드
장부(원장)	• 중앙예탁기관(CSD)의 단일 전자장부	• 블록체인 분산원장(참여자 공동 보관·검증)
발행·예탁	• 예탁기관 등록 후 중개기관 통해 배분	•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
청산·결제	• 다수 중개기관 개입 • T+5일 소요	• 스마트 계약 기반 즉시·동시결제 가능 • 극단적 경우 이론상 실시간 결제
원리금 지급	• 지급 대행기관을 통해 지급	• 스마트 계약이 자동 계산 및 직접 지급
거래 단위	• 고객단위 중심(기관 투자자 위주)	• 소액 분할이 용이 • 개인 투자자 접근 확대 가능

▶▶ 단, 디지털본드의 장점은 디지털 네이티브 환경에서 극대화되며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존재

- ⑦ 실제 발행 사례는 ① 발행, 등록 및 결제는 분산원장 기반으로 하되, ② 계약 체결이나 자금이동 등 일부 절차는 각국 규제에 맞추어 전통적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과도기적 형태에 해당

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전통방식으로 채권을 발행 및 예탁하되, 블록체인에 쌍둥이 복제본을 만들어 기록 및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함. 법적 효력은 여전히 기존 예탁기관 장부가 기준이며, 토큰은 보조 기록에 해당

②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처음부터 블록체인 위에서 채권을 직접 발행하여 토큰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증권이 되는 방식. 중개기관 개입이 최소화되어 효율성이 크지만 이를 인정하는 법령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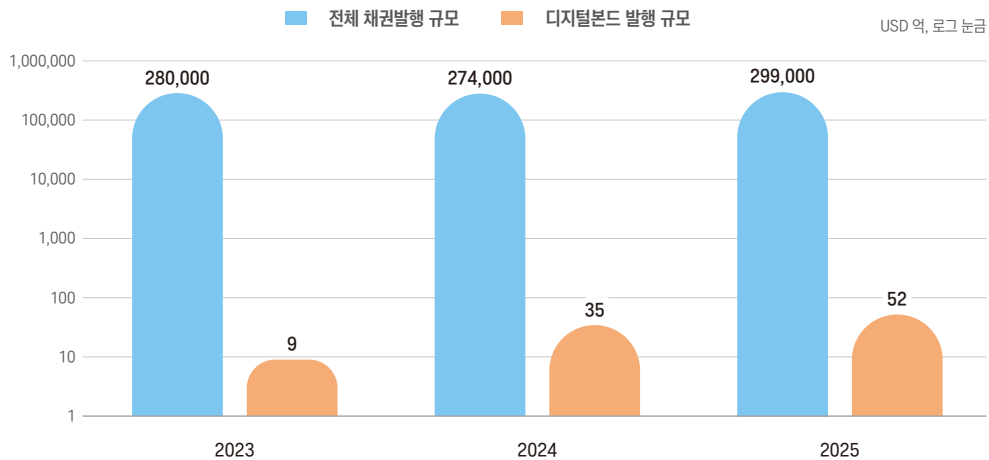
- ▶ 글로벌 시장은 초기 실험 단계의 디지털 트윈 방식에서 출발하여, 법제화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방식으로 진화 중

II. 글로벌 디지털 본드 시장 동향

▶ (시장 규모) 초기형성 단계이나 빠른 성장을 보임

- ② 전 세계 채권발행 규모는 2025년 말 기준 USD 30조(약 4경원) 수준으로 매년 한국 GDP의 15배가 넘는 채권이 신규 발행되고 있음
- ②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디지털본드는 2025년 약 USD 52억(약 7조원)으로 전체 채권발행의 0.02%에 해당
 - 다만, 디지털본드 발행 규모는 2023년 USD 9억에서 2025년 USD 52억으로 2년 만에 5배 규모로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임
 - 특히 2025년 홍콩 및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디지털본드 발행의 약 78.8%(USD 41억)를 차지하여 주도적 역할을 선점

글로벌 채권발행 및 디지털본드 발행 규모



출처: SIFMA Capital Market Fact Book, AFME DLT-Based Capital Market Report(단, 1유로=1.08달러로 환산)

- ② 2026년에도 홍콩 HKMC에서 디지털본드 사상 최대 규모인 HKD 120억을 발행하였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 한국 기관들의 발행도 이어지며 성장세 지속

2026년 글로벌 디지털본드 주요 발행 사례

시기	발행주체	내용	규모	투자자
26.2월	SBI(일본)	• 개인 공모 디지털본드	JPY 100억	개인 포함(최소금액 10만엔)
26.5월	한국주택금융공사	• 국내 공공기관 최초 디지털본드	USD 2억	기관
26.6월	HKMC(홍콩)	• 세계 최대 규모의 공모 디지털 본드	HKD 120억	기관

▶▶ (주요 사례 ①) 홍콩의 디지털본드 발행

- ⑤ 홍콩정부(HKSAR)는 2023년 세계 최초의 정부 톡권화 그린본드(HKD 8억)를 발행 후, 2024년 2차(HKD 60억), 2025년 3차(HKD 11억)로 확대하며 매년 정례발행 체제를 구축
 - 또한, 발행보조금제도(Digital Bond Grant Scheme, DBGS)를 운영하여 민간 발행을 유도하고, 2025년 6월 「Policy Statement 2.0」을 통해 정부 톡권화 채권을 정례발행
 - 2026년 6월에는 공사와 유사한 주책금웅기관인 홍콩모기지공사(HKMC)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HKD 120억 규모(약 2.2조원)의 공모 디지털본드 발행에 성공함

▶▶ (주요 사례 ②) 싱가포르의 디지털본드 발행

- 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다기관 협업 프로젝트인 「Project Guardian」과 톡권화 채권 실무 프레임워크(GFIF)를 통해 발행·결제 및 수탁 표준을 정비함
- ⑤ 2025년에는 디지털본드 발행보조금 제도(Global Asia Digital Bond Grant Scheme)를 도입하여 적격 발행비용의 30%를 지원하며 디지털본드 발행 허브 경쟁에 가세

싱가포르 주요 디지털본드 등 발행 사례

연도	발행사	내용	플랫폼
2020년	Olam International	• 공모 회사채(SGD 500백만)의 디지털 복제	• SGX 디지털자산 플랫폼 ¹⁾
2021년	DBS	• 사모 디지털 본드(SGD 15백만) • 싱가포르 최초의 디지털 본드	• DBS Digital Exchange ²⁾
2021년	Sembcorp-Singtel	•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디지털 트윈 발행	• ADDX ³⁾
2022년	OCBC	• 단기사채(ECP, USD 1억) • 톡권화 예금활용 동시결제(DvP) 최초적용	• Marketnode ⁴⁾
2024년	OCBC	• 맞춤형 톡권화 사모채 • 투자자 수요에 맞춰 조건 및 만기 개별 설계	• OCBC 자체 플랫폼 ⁵⁾
2025년	DBS	• 톡권화 구조화증권 • USD 1,000 단위로 소액화	•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 • 공개형 블록체인 활용

1) 싱가포르거래소(SGX)가 구축한 분산원장 기반 발행 및 예약 플랫폼(이후 Marketnode로 발전)

2) DBS 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발행 거래 플랫폼(기관 및 공인투자자 대상 운영)

3) 싱가포르통화청(MAS) 인가를 받은 독립 디지털 증권 발행 유통 플랫폼(적격 개인투자자 참여가능)

4) 싱가포르거래소(SGX)와 테마섹(Temasek)이 합작 설립한 분산원장 기반 채권 발행 및 결제 인프라

5) OCBC가 자체 구축한 허가형 분산원장 플랫폼(주관, 발행 및 관리를 단일 은행이 일괄 수행)

▶▶ (해외 사례의 시사점) 디지털본드는 1회성 기술 실험의 단계를 지나 정부·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정식 자금조달 수단으로 진화

III. 디지털본드 관련 주요 이슈

1. 개인투자자의 투자가능성

▶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태국, 일본)의 경우 일반 개인이 참여한 사례가 존재하며, 각국은 모두 개인 접근성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 중

⑤ (홍콩·싱가포르) 기관 중심이나 적격 개인까지 단계적 확대

- 홍콩 정부의 디지털 그린본드와 HKMC 디지털본드는 모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반 개인은 아직 참여 불가함.
- 다만, 홍콩은 일반 국민 대상 소매채권을 꾸준히 발행해온 경험이 있으며, Policy Statement 2.0(2025.6월)에서 토큰화 상품의 라이선스 플랫폼 내 2차 유동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혀 향후 소매 디지털본드로의 확장여건을 마련 중
- 싱가포르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함

⑥ (태국·일본) 일반 개인이 실제 참여한 선도적 사례 존재

- 태국 중앙은행(BOT)과 재무부(MOF)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정부저축 채권을 일반 국민에게 판매
- 일본의 마루이 그룹은 일본 최초의 공모 자기모집 토큰화 회사채를 자사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발행(2022년)하였으며, SBI홀딩스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디지털본드인 「START Bonds」를 발행(2026년 2월)

개인투자자 참여가능 디지털본드 사례

국가	사례	최소 투자금액	특징
태국	• 정부 저축채권(2020년)	• 100바트(약 4천원)	• 세계 최초 블록체인 국채 소매 판매
일본	• 마루이그룹 토큰화 회사채(2022년)	• 1만엔(약 9만원)	• 카드회원 대상 직접 판매
	• SBI START Bonds(2026년)	• 10만엔(약 90만원)	• 공모발행 • ODX 유통시장 매매 개시
싱가포르	• ADDX 플랫폼(2021년)	• 5,000달러(약 700만원)	• 적격 개인투자자 한정

▶ 소액 분할이 디지털본드의 핵심장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 중심의 현재 시장이 개인투자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채권투자 접근성을 높일 전망

2. 디지털본드와 세제 체계 정비

▶▶ (기본 원칙) 실질이 채권이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과세

- ⑤ 주요국 세제의 공통원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법적 실질이 채권이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과세**
- 즉, 디지털본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과세 체계가 아니라 주식·채권 등에 적용되는 '증권세제'를 적용

주요국의 채권(디지털본드 포함) 투자 과세 개요

국가	이자소득	매매차익	디지털본드 관련
한국	•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개인 비과세	• 토큰증권도 기초자산(채권) 기준 동일과세 방향
싱가포르	• 개인 비과세	• 없음	• 적격채무증권 세제혜택을 디지털본드에도 동일 적용
홍콩	• 개인 비과세	• 없음	• 채권은 인지세 면제 • 토큰화 상품 세제 명확화 추진 (Policy Statement 2.0)
일본	• 20.315% 분리과세	• 20.315% 분리과세	• 디지털본드도 일반채권과 동일 과세

▶▶ (향후 쟁점)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자동거래된다는 특성으로 인한 실무쟁점이 존재

- ⑤ 세목이나 세율 측면에서는 기존채권과 차이가 없으나, 원천징수 및 투자자 소재지별 세제 적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원천징수) 스마트계약으로 이자를 자동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 존재
 - (국경간 거래) 24시간 동안 국경 없이 거래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투자자 신원 및 거주지 확인 체계와의 연계 여부 등 정비 필요
 - (거래세 등) 토큰의 장부상 이전을 기존 증권의 이전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등 정비 필요
- ⑤ 한국의 경우 디지털본드 관련 법규 법제화(2027.2월 시행 예정)와 함께 토큰 증권의 세제도 기초자산과 동일과세 원칙으로 정비될 전망이며, 원화 디지털본드가 발행되더라도 투자자 입장의 세부담은 일반채권과 같을 것으로 전망

IV. 한국의 디지털본드 현황

▶▶ (대표사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성공적 디지털본드 발행

- ⑤ 공사는 디지털본드(USD 2억, 2년 만기)를 **2026년 5월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으며, 이는 채권 발행, 등록 및 결제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진 국내 공공기관의 첫 사례**
 - 발행플랫폼은 홍콩 정부의 디지털 그린본드 발행에도 활용되었던, HSBC의 토큰화 플랫폼 「Orion」을 활용(홍콩 중앙예탁기관 CMU 연계)
 - 발행금리는 SOFR+0.39%p로 공사의 우량 신용등급(무디스 Aa2)이 디지털본드라는 새로운 형태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
- ⑥ 공사는 디지털본드 발행으로 통상 가격결정 후 5영업일이 걸리던 발행대금의 결제가 **3영업일로 단축**됨
 - 이는 단순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이며, 한국이 동아시아 디지털본드의 상업화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

▶▶ 국내 발행동향과 제도화 전망

- ⑤ 2026년 **국내기관의 외화 디지털본드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
 - 미래에셋증권이 2026년 1월 국내최초로 홍콩에서 외화 디지털본드를 발행
 - 포스코 인터네셔널(26.4월, 국내 비금융기업 최초), 한국주택금융공사(26.5월, 공공기관 최초), KB 국민은행(26.6월, 국내 은행권 최초)이 잇달아 홍콩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본드 발행 성공
- ⑥ 국내에서는 자본시장 법규상 **디지털본드 발행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이 발행에 제약**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토큰증권은 ‘증권’이라는 원칙과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
 - 또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027년 2월 시행)은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의 공적 장부로 인정하여, **원화표시 디지털본드 발행의 법적기반이 마련될 예정**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주요 경과

시기	내용
2019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동산 등 조각투자 시범사업 운영
2023년 2월	•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토큰증권의 증권성 및 규율체계 방향 제시)
2026년	• 미래에셋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수의 외화 디지털본드 발행 시행
2027년 2월	• 전자증권법 및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원화표시 디지털본드 발행가능

V. 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본드는 파일럿 단계를 넘어 반복 발행이 가능한 정식 자금조달 수단으로 진화 중

- ② 투자자 및 발행사 측면에서 ①결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②거래기록의 투명성 제고, ③소액단위 투자 접근성이 주요 장점이며, 태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일반 개인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 ② 세제 측면에서는 기존채권과 동일하게 과세되나, 원천징수 등 실무 쟁점은 각국이 법규를 정비 중

▶▶ 한국의 경우 기존 발행은 모두 홍콩의 플랫폼을 활용하였으나, 27.2월 토큰증권 법제화 시행을 계기로 원화 디지털본드 시장이 열릴 전망

▶▶ 공사의 선도적 발행 경험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 금융에 안착한 대표사례이며, 향후 금융인프라 혁신과 국민의 투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Pick of the Season

HF Navigator

Global Trend

과목

| 참고문헌 |

- 한국주택금융공사(2026), 「주택금융공사, 공공기관 최초 디지털채권 발행」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위원회(2023),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HKSAR(2025), HKSAR Government's Third Digital Green Bonds Offering.
- FSTB(2025), Policy Statement 2.0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in Hong Kong.
- MAS(2025), Global Asia Digital Bond Grant Scheme.
- BOT(2025), New Government Bond Infrastructure launched with Blockchain Technology.
- SIFMA(2026, 2025), Capital Markets Fact Book.
- AFME(2026), DLT-Based Capital Market Report.

Pick of the Season

HF Navigator

Global Trend

부록

